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  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48

#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

(사무엘상 3:19~4:22)

**‘하나님의 선지자’ 사무엘의 이름이  
점점 유명해질 때쯤  
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 
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.**

**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 
은이나 금, 나무로 된 조각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 
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.**

**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왔고  
이스라엘은 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.  
수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.**



충격에 빠진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 
회의를 열었어요.

“어허. 어찌하여 하나님께서.  
이번엔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을고...  
다들 꿀 먹은 사람처럼 가만있지 말고  
의견들을 좀 내보시오, 의견들을!”

그러자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.

**“저, 저기... ‘실로’ 지역의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 
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어떨까요?  
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를  
생각해 보면 항상 언약궤가 곁에 있었습니다.  
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.  
그러니 이번에도 언약궤만 있으면  
당연히 승리하지 않겠습니까?”**

**하지만 이건 정답이 아니었어요.**

**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 
귀중한 물건이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 
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죠.**



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 
뉘우치는 대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‘방법’에만  
온 정신을 기울였던 거예요.

어쨌든 사람들은 ‘실로’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 
언약궤를 옮겨왔어요.  
대제사장 엘리의 악명 높은 두 아들도  
언약궤와 함께 같이 따라왔죠.

“우와!!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곁에 돌아왔다!!!  
이제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야! 야호!”

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찌나 신이 나서  
소리를 쳤던지 온 땅이 찌렁찌렁 울렸어요.  
저 멀리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서도 들릴 정도였죠.

“아니, 이스라엘 녀석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?  
엇그제까지 우리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 
뭐가 좋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게냐”

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염탐하고 돌아온  
블레셋 군사가 허겁지겁 달려왔어요.



**“헉헉. 장군님!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들이 믿는  
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답니다!  
소문에 따르면요, 저 언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 
이상한 힘이 막 생겨서요  
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!”**

**그 말을 들은 블레셋 군사들은 갑자기 두려워졌어요.  
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셨지만  
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.  
블레셋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 
언약궤도 하나의 우상처럼 생각했던 거예요!**

**“허... 이거 큰일이구만.  
다들 잘 들어라.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 
똥똥 뭉쳐서 싸워야 한다.  
이스라엘의 노예 신세가 되고 싶지 않다면  
사나이답게 용기를 내서 맞서야 할 것이다!  
다들 준비되었는가!!”**

**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리석은 판단은  
도리어 블레셋의 사기만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.**

**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 
맞서 싸웠지만  
이상하게도 전쟁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죠.**



**“어? 이럴 리가 없는데?  
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왜 저들이 더 잘 싸우는 거지?  
아이고, 일단 도망치고 보자!”**

**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였어요.**

**엘리의 두 아들을 포함해 삼만 명이나 되는  
군사들이 목숨을 잃었고, 살아남은 군사들도  
모두 도망쳐서 뿔뿔이 흩어졌죠.  
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 
따로 있었어요.**

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 
빼앗겨 버린 거였죠.  
언약궤를 잃게 된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 
그야말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.

한편, 실로 지역에서는 대제사장 엘리가  
길가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.  
엘리는 이미 나이가 98세나 된 노인이었고  
앞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 
하염없이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.

“이 철없는 아들 녀석들  
언약궤를 내어주고 전쟁에 따라가다니.  
부디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”



그때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한 사람이  
실로에 도착했어요.  
그 사람의 행색이 어찌나 초라했던지  
입고 있는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 
머리에는 시커먼 재를 뒤집어쓴 상태였죠.

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도 전쟁의  
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지만  
앞을 못 보는 엘리는 상황을 알 수가 없었어요.

“거 무슨 일이요? 지금 다들 울고 있는 것이요?  
제발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보시오! 말 좀!”

그러자 초라한 행색의 군사가 엘리에게 말했어요.

**“대제사장님, 싸움터에서  
가갸스로 살아 돌아오는 길입니다.  
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했습니다.  
그리고, 대제사장님의 두 아드님들도  
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...”**

**“뭐, 뭐라고...?!”**

몸이 쇠약했던 엘리에게 너무나도  
가혹한 소식이었어요.  
엘리가 아무 말도 못 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데



**“그리고 대제사장님... 하나가 더 있습니다.  
하나님의 언약궤를  
적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... 엉엉.”**

**그 말을 들은 엘리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 
이젠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.  
그리고,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 
의자 뒤로 쓰러지고 말았죠.**

**여러분 기억하나요? 이전 이야기에서  
하나님께서서는 사무엘을 통해 엘리의 가족이  
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.**

**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현실이 된 거죠.**

**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우상을 섬긴  
이스라엘 백성들은  
언약궤를 잃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.**

**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 
언약궤를 되찾아오지 못하는 걸까요?  
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 
가지고 있을 자격이 있었을까요?**